‘화순군민의 상’ 주인공 찾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 유공 부문 등 4개 부문 추천 접수

화순군은 26일 ‘제42회 화순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8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추천 부문은 4개 부문(▲지역 사회 발전 유공 ▲효행 ▲교육 · 문화 · 체육 ▲새 일꾼 상)으로 해당 부문에서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모범을 보인 개인이나 단체를 선발할 계획이다.

추천은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읍 · 면장이 하며, 추천하고 싶은 후보가 있으면 관할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추천된 후보는 현지 확인 조사와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여부를 결정하며, 수상자는 ‘제42회 화순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정 발전에 앞장선 공로자와 단체에 영예로운 상으로 보답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며 “기관 · 사회단체나 군민들께서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의 상은 1982년부터 2022년까지 41회를 거쳐 총 35명이 수상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장성에 4900억 규모 ‘데이터 센터’ 들어선다

전남도청서 투자협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2026년까지 장성 남면에 구축

장성군이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투자 유치 소식을 전했다.

군은 26일 전남도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KB증권㈜와 함께 데이터 센터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장성군 남면 첨단3지구 부지에 사업비 4900억 원을 투자해 3만 3000㎡, 40메가와트(MV) 규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설계와 설비 구축,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한다.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100명 규모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각종 첨단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

데이터 센터는 네트워크 서버 등을 운영하는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데이터 기반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전력 소모가 크다. 대기업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분산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투자협약은 수도권 대기업 데이터 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데이터 센터 지방분산정책’이 실현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는 데이터 센터에 예비전력을 지원하는 전력공급 방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와 장성군은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배명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사장은 “데이터 센터 지방분산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국가 신성장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장성군 데이터 센터 구축을 5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성공적으로 구축돼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함평, 벼 대체 작목 ‘율무’ 육성

왕우렁이 활용 유기 농법 재배 … 전 과정 기계화 추진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논 이용 율무 이앙 기계화 재배 사업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벼 대체 작목 육성을 위해 함평읍 장년리 일원에 2ha 규모로 밭작물인 ‘율무’를 이앙 재배한다”고 26일 밝혔다.

율무는 항암, 시력보호,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뛰어나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왕우렁이를 활용해 제초제 없이 유기 농법으로 친환경 율무를 재배할 계획이다.

또, 육묘에서 수확까지 재배 전 과정에 기계화 시스템을 도입, 2~3년 내로 재배면적을 100ha까지 확대해 율무 재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율무 이앙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영광법성포단오제’ 성황리에 마무리

나흘간 8만여명 찾아

영광군은 500년의 오랜 역사를 이어온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관광객들의 호평 속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여름 폭염과 마지막 날 우천의 어려움 속에서도 8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서해안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축제임을 입증하였다.

올해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인 용왕제 · 선유놀이 ·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중심으로 산신제 · 당산제 등 제전의식, 씨름대회 · 민속놀이(투호,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 창포 머리감기 · 그네뛰기 등 전통적으로 단오절에 행해진 풍속과 쑥떡메치기 · 세계 전통놀이 체험 · 마술 공연 · 장어잡기 체험 · 어린이 에어바운스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과 찰보리 · 모싯잎송편 · 굴비 · 천일염 등 특산품 홍보 및 영광군의 군정 홍보관 등이 운영되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KBS와 함께하는 전통 국악공연 국악한마당,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자들의 노래경연 2023 법성포단오가요제, 전남 청소년들의 재능을 뽐내는 전남 청소년 만사형통 페스티벌, 드넓은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라이트 쇼, 전국 팔씨름 대회 등 무대 프로그램 또한 알차게 준비되어 전국적으로 단오제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영광=서종민 기자

담양 친환경 쌀, 서울 노원구 학교급식에 연간 100톤 공급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공급업체 선정

담양군은 최근 서울시 노원구 친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담양군농협통합RPC)이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선정돼 노원구 초중고교 61개소에 연간 100톤의 쌀을 공급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간 1,000여 톤을 서울시 성북구 등 학교급식에 공급하며 친환경 쌀의 맛을 인정받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담양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친환경농업의 중심지로서의 청정 담양군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앞으로도 대도시 아이들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나주, 영산강 명품 3백리 자전거길 조성 ‘순항’

행안부 공모 4억 확보… 문평천 단절구간 신설 추진

나주시가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하천 교량 철거로 단절됐던 영산강(문평천) 자전거길 구간을 연결한다.

나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3년 국토종주자전거길 정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길 조성을 위해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 발굴 및 단절구간 연결, 기존노선 도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 선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올 하반기부터 다시면 가흥리 문평천 영산강 합류지점 자전거길 단절구간에 총길이 320m · 폭3m 켄틸레버식 자전거길(연결데크)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자전거길은 2020년부터 수해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문평천 재해복구공사로 하천 횡단 교량(회룡교)이 철거되면서 완전 단절된 상태다.

교량 철거로 인해 기존 노선이 하천 농로를 우회, 곡선 교량 차도로이어지는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자전거 이용자 불편과 차량 간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왔다.

문평천을 가로지르는 자전거길이 연결되면 이용자 안전 · 편의성 향상은 물론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추진중인 영산강 명품 3백리 자전거길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11월 영산강 3백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주시도 올해 5월 국가하천(영산강 · 지석천) 자전거길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실시설계 이후 오는 2025년까지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산포배수장~지석천변길’, ‘덕천들~영산강변길’ 단절구간 연결과 노후 자전거길인 ‘나주대교~영산강저류지’ 구간 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산강 만봉천 자전거길 사업 구간인 오는 7월 동강느러지전망대 자전거길, 내년 12월 운곡동 자전거길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항 중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토종주자전거길 정비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단절된 자전거길 구간을잇고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명품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영산강명품 3백리 자전거길 조성을 통한 대회 유치와 자전거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장흥,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장흥군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조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대행 기관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로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다.

장흥군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약 300여 개의 대상시설을 3개월간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편의시설 설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미흡한 곳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사임에 따라 지체장애인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문성 확보코자 했다”며 “조사대상 시설주는 현장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9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6회째인 이번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장흥=임민기 기자